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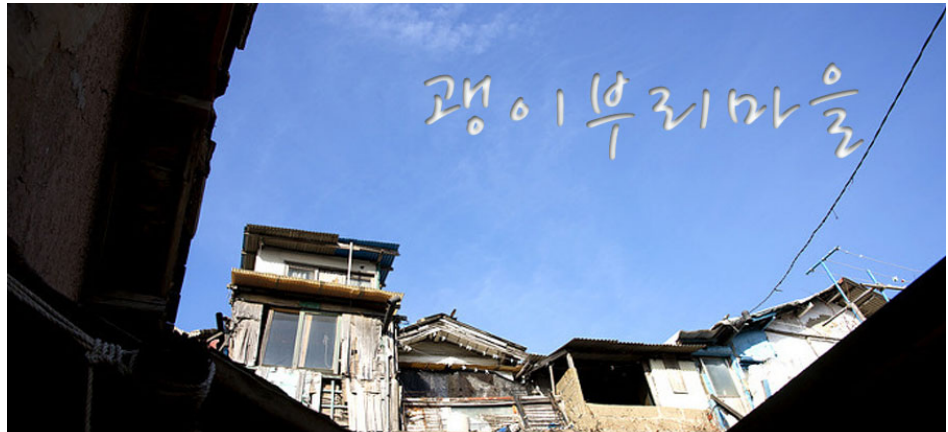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장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Column

인천의 쪽방마을 “갱이부리말” 원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Interview

지역의 마을 공동체 속에 교육과 복지, 일자리 창출하는 '토인비홀' 있어야



IDI 소식



인발연,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서해평화정책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Zoom 人



인발연은 마흔다섯, 첫 직장의 의미 그 이상_서봉만 박사
늦깎이 신입박사로 들어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한 지 100여일 남짓된...

Zoom INcheon



경명대로(2)_서곶과 사라진 섬들
옛날 정매이고개는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능선을 넘는 언덕길 마루에 있...

도시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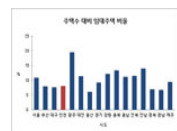
365일 여유로운 도시, 해밀턴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가 뉴질랜드, 그중 해밀턴(영...

IDI 연구



연수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방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

인천지표



인천의 임대주택 현황
「임대주택법」 상의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남호 보기

2012년 7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쪽방마을 “괭이부리말” 원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권 현 진 · 인천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조교수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로 바쁜 괭이부리말 사람들은 왜 이 동네 이름이 ‘괭이부리’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만이 포구와 동바다를 하얗게 뒤덮는 괭이갈매기를 볼 때마다 ‘괭이부리말’이란 이름은 저 괭이갈매기 때문에 생겼을거야’라고 생각할 따름이다.”

- 김중미 자음 “괭이부리말 아이들”에서

괭이부리말은 김중미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 더욱 유명한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마을이다. 쪽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IMF이후 노숙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숙인들의 거처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쪽방이 형성된 일반적 배경으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정착,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도시화의 형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쪽방지역들이 각자의 역사에 따른 생성과 변천을 겪고 있어 지역에 따라 쪽방의 형성과정과 주거형태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특성들에 대한 차이가 크다.

인천은 쪽방의 정의를 “월세나 사글세, 방1개, 임시 통로에 간이 부엌을 설치하거나, 공동화장실과 공동세면장을 사용하는 주거시설”로 정의하여 설비의 공용부분을 주요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인천 쪽방지역의 특징은 타 지역에 비하여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대부분이 노숙인이 아닌 오랫동안 이곳에 정착해온 지역주민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이다.

전국의 쪽방상당소가 파악한 쪽방설치수와 거주민 현황에서도 인천지역의 이러한 특징은 잘 나타나고 있다. 인천쪽방상당소가 파악한 쪽방생활자수 667명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은 27.9%이고, 장기거주비율은 100%로 타 지역에 비하여 수급비율은 매우 낮고, 장기거주비율은 가장 높다. 따라서 인천의 쪽방 주민들은 수급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 국가의 복지정책의 혜택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주민의 다수가 노인들로 쪽방에서 오랜 세월 생활해온 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인천의 쪽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통상 계양구의 작전동과 효성동 일대, 중구의 인현동과 북성동 일대, 그리고 괭이부리말 지역이 있는 동구 만석동 일대가 쪽방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인천 동구 만석동 일대는 만석동 2번지와 9번지에 걸쳐 괭이부리말, 아카사키촌이라고 불리는 인천지역의 가장 큰 쪽방지역이다.

괭이부리말 지역을 포함한 인천의 쪽방 주민들은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현재의 생활공간이 열악하다고 느끼더라도,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볼 때 더 나은 주거지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주를 희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복지적 관점에서도 쪽방은 도시빈민의 주거상실에 대한 마지노선으로서, 그리고 주거상실 이후 지역사회에 재정착하는 발판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쪽방 자체를 주거자원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식이 쪽방 주민의 행복을 위한 첫 단추여야 한다.

열악한 물리적 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쪽방 자체를 어떻게 해보려 했던 그간의 시도들은 쪽방이라는 건물자체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쪽방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매우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일반적 편견 때문에 그간의 쪽방대책은 그 지역에 대한 철거, 그리고 쪽방주민에 대한 이주로 일관되어 왔다.

괭이부리말 지역에 대한 과거의 개선노력 역시 철거, 이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최근 괭이부리말 마을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개발방식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반갑다. 인천은 괭이부리말 지역에 대해 현지를 보전하고,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도록 혼합형 주거환경개선 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있는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닌, 낡은 주택을 개량하고 임대주택과 공원, 각종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원주민들이 머물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성미구역 시청(안)을 원안가결됐다고 하니 계획실행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마을 일부의 보존과 함께 보금자리 주택 98가구를 짓고, 빈집 44채는 복가페를 만들고, 다들 공동 빨래방, 공동작업장 등이 함께 지어진다고 한다.

괭이부리말 지역의 개선은 개발방식 뿐 아니라 개발방식을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주거복지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구에서는 괭이부리말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아카사키촌 지역추진협의체'를 만들어 주민,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회원 등이 모여 쪽방촌의 개발 방식, 원주민들의 정착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지역구성원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노력은 개발계획 뿐 아니라, 만석동 쪽방지역내의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하고, 공동화장실을 준공하는 등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실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 가야할 방향을 찾은 괭이부리말 마을이 인천형 주거복지의 새로운 모형, 그리고 쪽방지역에 대한 신명나는 지역만들기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괭이부리말은 김중미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 더욱 유명한 인천의 대표적인 쪽방 마을이다. 쪽방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IMF이후 노숙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노숙인들의 거처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쪽방이 형성된 일반적 배경으로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과 정착,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시작된 도시화의 형성으로 보고 있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지역의 마을 공동체 속에 교육과 복지, 일자리 창출하는 '토인비출' 있어야

지역의 마을 공동체 속에 교육과 복지, 일자리창출 만들어가는 '토인비출' 있어야

이번 72호 아프리에에는 인천 시민운동의 대부이신 박종렬 목사를 만났다. 배다리, 계양산, 재개발, 남북문제 등 인천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뛰어드는 열혈활동가지만, 인자한 인상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박 목사와 갯이부리마을과의 인연, 초기 구상, 그리고 갯이부리마을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공동대표 박 종 렬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인천주거복지센터 이사장)

Q. 갯이부리마을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85년 10월에 송림6동에서 빈민선교를 위해 사랑방 교회를 차렸습니니다. 당시 어느 지역에 교회를 차릴까 조사를 했는데, 그 때에 만석동에 천주교쪽에서 수녀님이 하는 공부방이 있었고, 하수동에도 있었던 반면에 송림6동은 지역운동하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송림6동에서 빈민운동을 시작하면서 연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Q. 얼마 전 6월 11일에 갯이부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고시되었고, 곧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갯이부리마을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인천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만석동입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되면 안됩니다. 사람들이 재개발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열악한 지역이니까 자력적인

재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아이디어를 냈죠. 당시 동구청의 동아리에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사업진행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갯이부리마을 프로젝트입니다.

Q. 갯이부리마을을 어떤 형태로 구상하셨나요?

지역주민들의 지지도 받고, 과거를 보존하기도 하고, 노인들이 많이 사니까 복지도 신경쓰는 그런 총체적인 마을을 만들고 싶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는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100가구 정도의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영구임대를 지으면, 서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랬죠.

물리적으로 개발하는 형식은 재개발과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재개발은 모두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구청의 동아리에서 복지시설 및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서비스하겠다고 국비를 얻었습니다.

또 내부에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고, 계속 살려고 할 수도 있고, 땅 소유한 사람들이 안팔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모두 다 임대주택을 지을 수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은 소규모로 3인이 3층으로 짓는다면가 하는 소규모의 주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두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 대해 꿈을 꾀야 하는데... 나도 아이디어를 지금 이렇게 내놓고,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아닐지 모르니까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최근에는 갯이부리마을에 행복주거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센터인가요?

재개발같은 것은 주민들이 조합을 만듭니다. 사실은 그런건 아니지만은 주공 임대주택에서는 대표자 회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같이 의사결정을 해야 자금심도 높아지고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와 유사한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해피하우스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천 주거복지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의 지역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민들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분석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긴 했는데, 근데 아무도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을 한 500만원 정도 해서 빈 집을 수리해서 행복주거문화센터 이름으로 센터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을 상담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임대 정보도 주고, 그렇게 하는거죠.

오픈식은 안했지만, 월수금 7시까지 문을 엽니다. 인천주거복지센터의 우리 실무자가 2명밖에 없는데 이리로 옮겨서 일하고 있고, 주거복지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아서 일단 운영중에 있습니다.

Q. 갯이부리마을, 혹은 주거복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갯이부리 마을의 경우, 저는 지역의 마을 공동체 속에 토인비홀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토인비홀 같은 복지센터가 마을에 있어서 공동식사, 복지, 의료, 일자리, 그리고 교육 및 문화적 향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재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집도 새로 지어야 하구요. 또 수급자들이 100여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디서 살 수 없고, 차라리 여기 인근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그분들이 이전에 살던) 빈 공간에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부시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발사업이나 부수고 짓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하는 동안 정말 지역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다 자신의 이해관계로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좀 더 크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말이예요.

예를 들면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단체 중에 주거복지연대라고 있습니다. 사실 주거복지연대도 만들 때 제가 관여했습니다. 예전에 임길진씨하고 같아요. 그분 이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썩 이자 혹은 0%이자 줘도 된다. 그걸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 정부가 구제해줄 의무가 있다는 법을 만들어 놔는데도 정부는 이런 것들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을 조사해서 우리나라에 주거복지가 필요한 가구가 100만가구나. 그러면 1년에 10%씩 줄이겠다 그에 해당하는 예산도 짜고 해야하는데 참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변해야 우리나라, 그리고 인천의 주거복지가 실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대담/기록: 손 동 필(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이번 72호 아뜨리에는 인천 시민운동의 대부인 박종철 목사를 만났다. 배다리, 계양산, 재개발, 남북문제 등 인천 내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뛰어드는 열혈활동가지만, 인자한 인상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기에서는 갯이부리마을과의 인연, 초기 구상, 그리고 갯이부리마을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 방안 제시, 함께 사는 인천 '앞장'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23일, 인천광역시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마을만들기 정책'은 지역공동체 파괴, 원도심지역의 경제 침체, 도시경비사업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노후한 생활환경의 지속 등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풀아가는 하나의 정책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마을 사람"을 육성해 이들의 공동체를 지원하며 공간을 재생하는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마을 자체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을 유도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 연구원은 인천시 공간도 마을형으로 정비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단지·자연취락·상업 밀집형으로 유형을 나뉜 공간을 재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서해평화정책포럼' 개최

-분과 구성 마무리, 향후 운영방안 등 논의 / 인천이 중심 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모델 제시할 것



인천시와 인천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서해평화정책포럼'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1차 회의를 가졌다. 지난 17일, 송영길 인천시장,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최원식 인하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원,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평화·안보, 인문·역사, 동북아국제협력 등으로 분과 구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논의될 내용은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분석 ▲남북한과 중국이 상호 협력하는 서해평화정책 ▲강화교역사 및 환황해교류 역사 ▲서해 5도 등을 포함한 평화의 섬 실천 전략 ▲서해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분석과 해역 연계협력 방안 ▲해주~개성~인천 평화삼각지대 형성 방안 등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앞으로 논의될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이 중심이 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모델을 제시하고 차기 정부가 주요 통일정책 등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 인발연-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협력 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최금숙)은 지난 18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상호연구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김민배 원장은 '이번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협약 체결이 그동안 우리 연구원 내 인천여성정책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인천시 여성정책 개발 역량 강화 및 인천지역의 성평등문화 확산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9월에 '18대 대선에서의 지역여성의제'를 주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 중장기 인천산업발전전략 수립 토론회 개최

우리 연구원과 인천시는 지난 12일,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중장기 인천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중소기업 19개 대상 업종별 기업체 대표와 유관기관 관계자,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공무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해내고, 기업 지원정책 및 육성방안을 협의하는 등 인천의 중장기 산업발전전략 수립 이전에 지역 기업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계기가 되었다.



■ 제1차 인발연-정책물류통상연구원 공동주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일, 인하대학교 정책물류통상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재정문제를 포함한 지역 경제 현실을 점검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인발연은 마흔다섯, 첫 직장의 의미 그 이상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7월에 만난 idi people

인발연은 마흔다섯, 첫 직장의 의미 그 이상

서/봉/만 박사

“아트리에에는 올해, Zoom人 코너에 'IDI 사람들'을 선보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한술밥을 먹고 있는 연구원, 행정사무직, 기능직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 전직 연구원까지 여러 관계와 인연을 만나려 갑니다. 독자 여러분과 함께 연구원이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고, 가야할 길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인천발전연구원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늦깎이 신입박사로 들어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한 지 100여일 남짓된 서봉만 박사.

서 박사는 진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나고 자랐다. 87년에 대학교에 입학해, 아픈 세대, 아픈 87 학번으로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낸 기억이 있다.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학생운동, 데모는 대학생들에게 축제에 가까운 일이었으니 어느 정도 즐기(?)는 한 것 같다. 그렇게 91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에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

석사 과정에서는 탄광촌이라든지 농촌... 어려운 촌동네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선배들도 이와 관련한 논문을 많이 쓰던 때라, 자연스레 낙후된 지역의 가난한 마을을 찾아가 그곳 사람들을 인터뷰 하거나 함께 지내면서 장소나 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그러나 좋아하는 만큼 느껴지는 한계도 컸고, 보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 박사는 어릴 때부터 해외의 문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막연한 동경이 있었다. 그리고 공부를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은 꽤 어린 나이부터 해왔었다. 지적인 허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쓸데없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치기 어린 생각에 지나지 않지만 유학이 그런 지적 허영을 채워줄 것만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단순하게 연구를 하다보면 사회적으로 유익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또한 있었다. 그런 호기로운 마음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유학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서 박사는 많은 것을 느꼈다. 그간은 공부하는 데 별 어려움을 못 느끼고 살다가 언어도 안 되고, 그래서 한 2-3년은 한계를 많이 느꼈고, 거의 10년이 걸려서 걸려서 (박사 학위, 미네소타 주립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다. 학위를 마치기 전에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Miami)에 있는 플로리다 국제 대학에서 첫 교직을 시작하였다. 여러 가지 복지 제도와 도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곳이지만 한 해의 반이 겨울인 미네소타와 정반대로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는 연중 반팔로 지내는 소문난 휴양도시였다. 플로리다 국제 대학은 흔히들 말하는 파티스쿨 중의 하나인데 학생들의 다수를 점하는 매력적인 라틴계 이민 2세들과 남미 출신의 유학생들이 1년 내내 파티를 즐기는 그런 곳이었다. 그렇다 보니 눈은 즐거워도, 공부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되고, 2년쯤 지나 술술 회의가 느껴졌다. 그런 시기에 마침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에 자리가 나서 옮기게 되었다. 일본에 관한 관심도 많고 일본 은행들의 국제화 관련

바나나야 노무라 씨가마 이바시로 느스리게 하기 무리나 적은 하사 보편하게 새가레 스킵드 해오며

국립대학 교수로 있던 김민기를 중국에게 이직 하러온 김민정 박사는 일본에서 2-3년간은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기에 같은 시기에 임용된 캐나다인 교수를 중심으로 매우 제한된 사람들과 주로 시간을 보냈다. 이후 일본어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학내의 몇몇 교수님들과의 제한된 관계를 넘어서는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대신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새로운 영역들에 대한 공부를 한 게 보탬이 되기는 했으나 무언가 공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형식적으로야 꽤 괜찮은 대학에 교직에 있으면서, 대우도 좋고, 수업부담도 적고, 2-3년 지나니까 언어도 어느 정도 능숙해지고, 아이들도 잘 적응하게 되어서 무난한 삶이었다. 하지만, 서 박사는 자신의 학문적 삶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타협을 해 나갔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서 박사의 마음을 치는 것은 앉아서 공부만 하는 선비는 되고 싶지 않다는 울림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바깥 세상과의 소통에 대한 갈증은 심해져갔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 돌아올 운명이었는지, 동일본대지진으로 동경에서의 생활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커지면서 귀국길에 오르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서 박사는 평소 지역관련 연구소와 대학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찾던 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가장 잘 맞아 떨어진 곳이 인천발전연구원이었다. 서 박사는 기본적으로 지역 및 도시의 사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자체의 발전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적인 평가를 통해서 드러나기 힘든 부분이지만 지역 경제 사회의 내부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역내의 내생적인 힘들을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봉만 박사에게는 인발연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개념으로는 첫 직장인 셈이다.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아시아 사회에 대해 가르치면서 일본의 독특한 직장 문화를 다룬 적이 있는데, 심지어 연애문제까지도 직장상사와 상의하는 이상한(?) 형태의 '직장인간'이란 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다. 물론 그것과는 다르지만 직장이라는 것, 한국에서의 직장생활은 예전에 느낀 적 없던 소속감에 대한 갈증과 갈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발연이 인천시 정책수요를 뒷받침해주는 연구기관이다 보니 여러 활동과 지향점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이러한 기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조직의 퀄리티 컨트롤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개개인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필요악이기도 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서로서로 활동을 동료로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서로를 알고, 자주 만나고,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비공식적인 교류의 장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들 알고 있는 영국의 티타임 같은 제도가 좋은 예일텐데, 오후 세시가 되면 티타임을 마련하는 영국 직장인들처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두번이라도 이슈페이퍼를 읽고, 연구부서별로 30분씩이라도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를 제안했다. 또는 연구에 유용한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직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단순히 담담히며 족구를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간관계는 초반에 친해져야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편하게 이어갈 수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연구원 식구 중에 인사를 못 드린 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만남의 자리를 갖고 싶은 분도 있는데, 노력하고 있으니 조만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연구원 생활 시작하고 얼마 지나서, 아내가 “요즘 재밌는 모양이네?” 라고 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인발연 생활이 새롭고 신선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많은 것들이 새롭고, 낯설지만 많은 연구원 분들이 도와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용기도 생기고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재미있게 인발연이 위해서는 개이저이 노력도 많이 필요한 거이고 앞으로 2-3년 정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과제와 함께

배워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다.

서봉만 박사에게 인천발전연구원은 마흔다섯, 한국사회 첫 직장생활이다. 그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학생으로, 교원으로 학교를 다니며 살았다. 그래서 인발연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최소 30년은 더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를 규정짓기 보다는, 인발연을 통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좋은 느낌 그대로, '좋아하면 끝까지 해보라'는 좌우명을 실천하면서 살 계획이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People are strange when you're a stranger."

이방인이 아닌 영향력 있는 인발연의 한사람으로서, 낙관적인 분위기 메이커로서, 조금은 경직된 연구원에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만 같은 서봉만 박사의 힘찬 행보가 주목된다.

■ interviewer : 조승현(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글/사진 : 장순지(사무처 경영관리팀)

늦깎이 신입박사로 들어와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근무한 지 100여일 남짓된 서봉만 박사. 서 박사는 진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까지 나고 자랐다. 87년에 대학교에 입학해, 아픈 세대, 아픈 87학번으로 다사다난한 1년을 보낸 기억이 있다.

경명대로(2)_서곶과 사라진 섬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 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인천의 길 이야기 7



글 / 김창수(도시인문학센터 센터장) 사진 /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연구위원)

옛날 징매이고개는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능선을 넘는 언덕길 마루에 있었을 것이다. 그 언덕마루로 이어지는 산 능선을 깎아 도로를 낸 것이 경명대로이다. 경명로 확장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산맥을 절단하지 말고 터널로 도로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95년 찻길 동물 사고(로드킬^{roadkill})로 죽어가는 동물이 늘고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인천시는 약 150억원을 들여 생태통로를 조성하였다. 이 생태통로는 너비 100m, 길이 80m, 전체 높이 12m규모의 아치형 터널 위로 만들어진 것으로 전국 생태통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그러나 100m의 생태통로를 통해 과연 철마산과 계양산의 생물들이 얼마나 오갈 수 있을까? 왕복 8차선의 경명대로가 단절된 한남정맥이 3km 이상인데 못 생물들에게 대가(?)로 배려한 것치고는 궁색하다. 환경단체이 제안한 대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산을 깎지 말고 터널로 길을 뚫어야 했다.

경명대로를 타고 징매이 고개를 넘으면 울창한 계양산 숲길 사이를 시원스레 가로 질러 서구청이 있는 연화동 쪽으로 향한다. 1km 남짓한 이 내리막길은 해발 200m 이상의 산지를 통과하는데다 주위에 민가가 없어 인천에서 가장 상쾌한 길 가운데 하나이다. 길 양쪽으로 예비군 훈련장이나 군부대가 있지만 완충녹지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다. 20년 전인 1994년 여름인가 폭염으로 열대야가 계속될 때 인천시민들이 건디다 못해 이곳으로 긴급 피서를 와서 경명로 길가의 나무 그늘에 자리를 펴고 더위를 식히던 광경이 떠오른다.



심곡로 무지개다리



숲길을 가로 질러 달리다 보면 얼마 안가서 첫 찻길길이 나타나는데 바로 공촌3거리이다. 왼쪽으로 난 길은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과 인천발전연구원이 있는 심곡동으로 향하는 심곡로이다. 심곡동은 인천의 외딴 곳인 서구에서도 가장 외딴 곳이었다. 심곡동의 고유지명은 **깊이울**이었다고 한다. 산줄기가 울타리를 두른 듯이 깊은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 **깊이울**의 뒷마을을 **뒷골**이라 부르고, 절이 있던 골짜기가 있어 **절골**이라고 불렀다. 호랑이가 나오는 골짜기인 **범골**이라 불렀다 하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으나 지명으로 봐서도 이곳이 오지였던 것은 분명하다.

자동차로 이곳을 지나면 그리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이 농담 삼아 인발연을 **심곡사**^{심곡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축곡봉에 올라 심곡동 일대를 내려다 보면 서구청이 있는 서쪽만 조금 열려 있을 뿐 동서남 세 방향이 산으로 에워싸인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심곡로 역시 경명로처럼 서구 근린공원과 눈썰매장으로 이어지는 철마산의 한 산자락을 가로질러 길을 낸 길이다. 심곡로가 지나간 곳에는 생태통로 대신 사람이 다니는 구름다리만 걸려 있다.

심곡동은 연희지구의 개발로 빌딩 숲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농가만 드문드문한 시골마을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깊이울**을 품고 있는 산자락의 꼭대기를 **탁옥봉**^{탁옥봉}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탁옥봉과 관련하여 신라 때 한 도인이 이 산위에 초막을 짓고 도를 닦았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탁옥이란 말 그대로 옥을 쪼고 다듬어 보석으로 만드는 일을 가리키지만, 주로 학문을 익히거나 도를 닦는 데 정진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 탁옥봉의 산자락이 바로 심곡동인데 이곳에 인천시 공무원 교육의 요람인 인재개발원과 인천시 도시연구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 공무원 수련관인 양지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 인재개발원도 이 골짜기 안에 모여 있으니, 탁옥봉이란 이름은 마치 옛사람들이 이 땅의 천년 앞을 내다보고 지어 부른 것 느껴진다.

공촌3거리를 지난 다음 교차로는 서곶로와 만나는 4거리이다. 왼쪽으로 가면 연화동과 서구청으로 가는 길이요 오른쪽은 검암역을 거쳐 강화로 향하는 길이다. 교차로를 건너면 오른쪽으로 옛 고잔리 일대와 갯벌을 매립한 경서 제2택지지구, 인천국제컨트리클럽이 차례로 펼쳐진다.

경서택지 2구획지구와 골프장 경계지점에 녹청자박물관이 있는데 골프장이 위치한 곳에 있었던 것을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도요지에서는 대접과 완접시, 자배기, 반구장경병 항아리가 출토되어 청자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경서 3거리와 산업단지를 지나면 정면에 화물 터미널 근처에 세운 풍력발전기의 커다란 풍차가 돌아가는 것이 눈에 들어 온다. 이곳이 경명로의 종점이다. 경명로의 끝 그러니까 국제컨트리클럽의 끝자락이 금산^{금산}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지금은 주변이 매립되어 작은 언덕처럼 남아 있지만 해변에 속은 50m의 언덕은 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곳이 옛 서곶에서 바다쪽으로 가장 멀리 돌출한 육지이다. 바다로 돌출한 육지가 ^곶이며, 그 안쪽의 마을을 ^{고잔}(^{곶안})이라 불렀으며 한자 표기의 고잔^{高田}은 바로 ^곶의 안쪽이라는 고유어를 음차한 것이다. 서구의 옛지명인 서곶은 바로 이 금산과 고잔마을에서 비롯된 것이다. 금산 언덕은 서구의 지명 유래를 알리는 중요한 장소이므로 표지석을 세우고 경관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금산 언덕이 중요한 것은 서구의 역사인을 중의 한 사람인 류사눌의 묘도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류사눌(1375~1440)은 문화류씨 중시조로서 자는 이행^衡이다. 류사눌은 태조 2년(1393)문과에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병조정랑을 지내고 태종7년(1407)에 문과 중시^{中試}·^직·^직에 합격한 후 사헌부 장령^{掌令}을 지냈다. 그는 경전에 밝고 문장에도 능했으며 은암에도 조예가 깊어 예문관 대제학 재직시에는 악학제조^{樂學提調}를 겸하여 ^{악보}·^{악보}·^{악보} 서문을 지었고, 세종16년(1434)에는 ^{진작가사}·^{진작가사}를 지어 ^{제악부}·^{제악부}에 실는 등 박연과 더불어 악학정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묘는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기념물 제5호로 지정된 바 있다.

류사눌 묘의 북쪽에 보이는 작은 언덕이 난지도(蘭芝島)이다. 서쪽으로 영종대교가 시작하는 곳에는 장도(獐島), 영종대교의 중간쯤에 있는 섬이 범섬(虎導), 북쪽의 큰 섬이 세어도(細牙島)이다. 서남쪽으로 운엄도, 소운엄도, 매도가 3형제처럼 나란히 떠 있다. 경명로의 남서쪽은 서부산업단지가 그 아래에 청라국제도시가 펼쳐져 있다. 청라국제도시의 서쪽 끝에 위치한 언덕이 청라도(靑蘿島)이다. 청라도 남쪽으로 문점도, 소문점도가 있었으나 지금은 흔적을 찾기 어렵다. 이밖에도 난지도 위쪽으로 장산도(長山島), 기도(箕島)도 등이 있었다.

서구 앞바다에 아름답게 떠 있었을 섬들은 대부분 매립으로 육화^{陸化}되고 말았지만, 그 흔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섬이 있었던 위치를 확인하고 섬에 얽힌 이야기를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서구청에서는 아라뱃길 입구에 정서진 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은 본래 바다 위였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취약점이 있다. 세어도와 범섬, 장도와 난지도와 같은 섬에 관한 스토리를 발굴하여 콘텐츠화함으로써 장소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서구는 인천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다. 서쪽으로는 바다로, 동쪽으로는 계양산, 축곡봉, 철마산이 가로막고 있었으며, 남쪽으로는 주안에서 울도로 이어진 바다와 갯골로 막혀 있어 인천교가 개통된 1958년까지도 나룻배로 다녀야 했던 곳이다. 당시에는 서구가 아니라 서곶으로 불렸으며 갯골 건너에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개간}·^{개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전기도 1969년도에 들어왔으니 인천시에서 도서지역을 제외하면 가장 늦은 편에 속한다. 그만큼 전통시대의 유산이나 경관이 많이 남아 있던 곳이었다. 이곳에 공항철도의 검암역, 경인 아라뱃길의 터미널이 생겼다. 그뿐 아니다. 청라 국제업무단지와 인천지하철 2호선이 건설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건설되고 있다. 문자 그대로 벽해상전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변화의 속도만큼 정든 장소와 정겨운 이야기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자연경관과 문화자원들의 보전과 활용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라뱃길 경인항

Photo Essay

제자리 제모습이
아름다움과 행복의 씨앗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빈 공간 빈 배들





7월 석종수가 펴고, 조승현이 쓰다.



길에서 만났
맛집
동네에서 만나는
'정음 한우' 나들이

글 장순지(사무처)
사진 석종수(도시기반연구부)

인근에 녹청자도요지와 국제컨트리클럽,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의 점심, 저녁 회식 장소로 맞출만한 곳이 있다. 넓은 실내공간은 물론 주차장도 여유가 있어서 격식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먹기 좋은 장소다. 경서동에 위치한 **한우한우만**은 흔히 말하는 정육점 식당이다. 주변에 발들도 있고, 외진 곳에 자리해서 그런지 어디선가 소가 뛰놀 것 같은(?) 그 정도의 한적함이 있다. 빌딩숲에서 먹는 한우보다는 운치가 더해져 한우 맛을 더 돋우지 않을까?

한우한우만에서는 정음 한우만을 취급한다고 한다. 식당에 들어서면 부위별 한우들이 선홍빛 붉은 자태를 드러내며 가지런히 냉장 보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식욕이 솟아나면서 마블링이나 가격표를 생각하면서, 어느 부위를 먹을지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다. 우리가 선택한 부위는 꽃 등심과 소 한마리 모듬(부위별로 먹고 싶거나, 아예 모를 때 적당한...)

메뉴에는 고기 100g당의 가격이 적혀있다. 평균 12,000원 내지 13,000원 정도 하는 것 같다. 600g으로 계산해보면 고기값은 그리 착한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한우 식당도 많으니까, 배터지게 먹을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so so!

그리고 대개의 정육점 식당처럼 1인 상차림은 3,000원씩 따로 받는다. 자리를 잡고 앉으면 기본 찬들이 세팅된다. 역시 어느 고기 집과 다르지 않은 김치, 백김치, 도토리묵, 샐러드, 무생채, 오이지무침 그리고, 양파 간장 소스창, 소금, 마늘, 상추, 깻잎, 고추, 파절이 등 고기쌈에 필요한 것들이 차려진다.

곧이어 잘 달군 숟불이 들어오고, 드디어 불판 위에 꽃 등심 한 덩이를 올려본다. 색깔이 곱다. 그리고 그 가운데, 꽃 등심의 화룡점정, 떡심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우를 찾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의 아홉은 좋아할 꽃 등심. 가격이 비싼 만큼의 기대치를 갖게 하는 부위이기도 하다. 고기 굽기 정도는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핏물이 떨어지는 정도까지의 고기마니아는 아닌 관계로 핏기는 살짝 가신 후에 먹는 걸로... 적당히 익은 등심 한 점은 입 안 가득 육향과 육즙이 퍼진다. 한의학에서도 등심은 기와 혈을 보한다고 한다. 값어치를 하는 부위답다. 그리고, 떡심. 떡심은 잘 몰랐는데, 지방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위라고 한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치아가 상하거나 소화불량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 오래 익히면 질기긴 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식감이 너무 매력적이다. 간혹 어떤 한우 식당에서는 꽃 등심을 시켜도 떡심이 없는 곳이 있던데, 그러면 무언가 웬지 속은 기분이고, 분노가 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결국 떡심에 대한 애정과 편견 또한 각자의 호불호가 중요할 듯하다.



소 한마리 모듬에는 안창살, 부채살, 채끝살이 나왔다. 우선 안창살은 앞뒤로 두 번만 구워서 먹어도 될

만큼 사르르 입안에서 녹았다. 씹하면서 감칠맛이 있다. 부재살은 촉촉이 흥부하면서도 알깃하고, 펼쳐놓으면 모양새도 아름답다(?). 채끝살은 스테이크로 많이 쓰이는 만큼 친숙한 맛하면서도, 안심처럼 연한 맛이 일품이다. 웬만큼 호사를 부렸으니 마무리 코스로 된장찌개에 공기 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된장찌개도 만족스럽다.



그리고 **한우한우만**에서 여름철 특별 보양식 메뉴로 선보이고 있는 듯한 팔복탕이 눈에 띄었다. 전복, 한우, 토종닭, 문어, 해물, 한약재 등이 들어간다고, 식재료만 봐도 보양식이란 믿음이 팍팍 생긴다. 특대가 130,000원, 대가 90,000의 고가이며, 한 시간 전에 미리 주문을 해야 한다고.

며칠 전 신문에서, **올여름 휴가, 멀리 가지 말고, 소문난 산지 한우마을로 떠나자!**라는 타이틀을 본 적이 있다. 치솟는 물가에 여행 계획 잡기 힘든 때이니, 저렴한 비용에 몸보신까지 할 수 있는 소문난 한우마을을 중심으로 한 여행을 떠나자는 것. 우리 한우 농가도 살리고, 복잡한 중간 유통절차가 대폭 축소돼 비교적 싼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맛볼 수 있는데다 주변 여행지와도 연계해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영월, 예천, 예산, 그리고 정읍이다. 휴가의 정점을 찍는 8월, 한우 산지 나들이가 힘들다면, 정읍 한우를 맛볼 수 있는 **한우한우만**에서 식사를 즐긴 후에 아라뱃길을 걸거나 자전거를 타고, 정서진 노을을 감상해도 당일 휴가 코스로 괜찮을 것 같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4-16 전화번호 : 032-566-2800



옛날 징매이고개는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능선을 넘는 언덕길 마루에 있었을 것이다. 그 언덕마루로 이어지는 산능선을 깎아 도로를 낸 것이 경명대로이다. 경명로 확장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산맥을 절단하지 말고 터널로 도로를 낼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호

▶ 웹진 구독신청하기

365일 여유로운 도시, 해밀턴



이 홍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원)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가 뉴질랜드, 그중 해밀턴(영어: Hamilton, 마오리어: Kīkīrimā)은 뉴질랜드의 북섬에 위치하는 와이카토 지역의 중심도시이자, 뉴질랜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해밀턴의 인구는 약 20만 명(대도시, 도심지 기준 14만명)이다. 뉴질랜드 제37대 헬렌 클라크 총리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도시의 중심에 와이카토강이 흐르며, 이를 기준으로 동부와 서부지역(뉴질랜드 국회의원 선거구와도 동일)이 크게 발전하였다. 해밀턴 가든과 해밀턴 호수 등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많으며 이들 모두 시민들의 주요 휴식처이다. 1960년대에 문을 연 해밀턴 가든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던 장소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꾸어 놓은 곳으로, 특히 전세계 각국의 유명한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마가든이 유명하다.

ARTERIAL RING ROAD AND CROSS-CITY CONNECTOR IN RELATION TO KEY EMPLOYMENT AREAS



1830년대에 마오리족과의 영토분쟁으로 인한 전쟁에서 최대 격전지였으며, 이곳에서 영국군이 거둔 승리를 기념하고자 전사한 전쟁 사령관 존 페인 찰스 해밀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다.

뉴질랜드 농업과 목축업(양) 중심지로 성장했으나, 경제개혁 이후에는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1990년대부터 인구가 급증했다. 2007년 현재 해밀턴 시는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격과 물부족 등 난개발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Hamilton birdview

해밀턴 시와 와이카토 강의 전경상공업 규모도 점차 커지면서, 뉴질랜드 최대 상업 더 웨어하우스(The Warehouse)는 2005년에 이곳 중심지(Hamilton Central)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점을 개점했다.

이 도시는 뉴질랜드 물류의 중심지이다. 철도교통으로 해밀턴 중앙역(Hamilton Station)이 있는데, 오전과 오후에 1편씩 관광열차(Tranz Scenic, 오클랜드-웰링턴)가 다닌다. 특대형 화물들의 중간기착 및 수송에 더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장 발달한 이 도시 도로교통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 전국을 횡단하는 1번 고속도로(Motorway)가 지나며, 타우랑가와 로토루아, 래글런, 뉴필리머스 등 북섬 주요지역들을 연결하는 대동맥도시로서, 현재 1번 노선의 오클랜드-해밀턴(뉴질랜드에서 가장 분주한 고속도로 노선, 약 120km) 간 4차선 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다. 또한 최근 Arterial Ring Road 사업을 통해 해밀턴의 주변을 순환하는 도로를 계획하여 편리한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해밀턴 국제공항은 최근 증축을 완료, 뉴질랜드 주요

도시들과 오세아니아 대도시들(시드니, 멜버른,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퍼지 등)을 직통 연결하고 있다.



▲ Hamilton downt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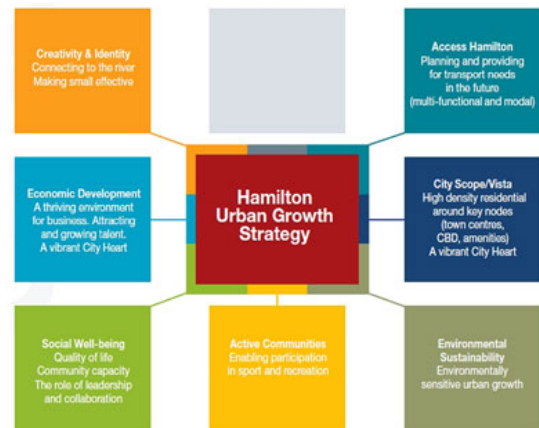


▲ Hamilton garden_china

법학과 경영학 등에서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와이카토 대학교(The University of Waikato)와 기술중심대학(폴리텍)인 윈텍(WINTEC) 등이 자리 잡아, 신흥명문 교육도시로서 젊은 층의 거주비율도 높다. 오를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의 과밀화 이후에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약 1,5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소수민족으로는 중국인 다음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해밀턴 가든에 아시아 국가로는 중국과 일본, 인도 다음으로 전통 '대한민국 정원'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도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해밀턴 시는 2008년 12월, 2041년까지 22만 5천명이 상주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주거 환경과 도시환경이 발전해야 한다는 “도시발전전략(Urban Growth Strategies)”을 통해 7가지 도시발전 정책을 발표하였다. 와이카토강(해밀턴시)를 가로지르는 강, 규모는 작으나 서울의 한강과 유사함과 연계한 아이덴티티 수립, 교통계획 정비, 친환경 도시,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웰빙 라이프를 위한 커뮤니티 강화,



▲ Hamilton urban growth strategy

경제 발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이 바로 그 정책이다. 이를 통해 과거 낙농업 위주의 성장으로 보였던 해밀턴 시가 도시로써 변화 ·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 Hamilton waikato river



▲ Hamilton waikato river_nightview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국가 뉴질랜드, 그중 해밀턴(영어: Hamilton, 마오리어: Kirikiriroa)은 뉴질랜드의 북섬에 위치하는 와이카토 지역의 중심도시이자, 뉴질랜드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다.

:: SEARCH

검색

- 커버스토리
- 시정연구
- 도시정보
- News

▶ 지난호 보기

2012년 7월호 ▼

▶ 웹진 구독신청하기

연수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방안

도시개발연구부 손동필 연구위원

■ 연구개요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선학시영, 연수시영단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연수주공1차단지 세 단지임. 세 단지 모두 1992~1993년에 준공되어 약 20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로 주거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연수구 내 위치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의 단지 내·외부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하여 해당 단지의 물리적 현황, 유사사례 등을 통해 실천 과제를 도출함

■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부평삼산1단지와 서울 방화11단지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 계층이 많이 거주하므로 거주민의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호 내부 및 단지 내 시설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함
- 임대아파트 내 주차장 확충을 위해 차량차단기 설치, 주차구획선 정리, 단지 내 이용률이 저조한 공간 활용 등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방법으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함
- 주변 지역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도록 부평삼산단지의 생태공원, 산책로, 간이 영화관 조성 사례와 방화11단지의 사랑채, 무료빨래방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부평삼산1단지와 방화11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과정에는 시·구 차원의 지원과 시민단체,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되었음

■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방안

- 선학시영아파트
 - 단지 서측의 플라타너스 나무는 조경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병충해에 강한 타 수종으로 교체하고 단지 북측의 선학중학교에서 신연수역에 이르는 동선에 휴게공간 및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산책로를 조성함
 - 주차 구획된 공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 등을 주차장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활용도가 낮은 오픈스페이스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
- 연수시영아파트
 - 외부 차량의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량 차단기를 설치하며, 주차선을 명확히 구획하여 주차 효율을 높임. 기존 이용도가 저조한 배드민턴장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 공간으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 2012년 완공 예정인 승기역이 개통되면 보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입구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승기역 개통을 대비하여 남측 출입구에 보행광장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여 주변 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도모함
- 연수주공1차아파트
 - 주차장 확충 문제가 매우 시급한 단지임. 지하주차장이나 주차 데크 설치 등과 같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큰 방법 대신 저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으로 주차문제를 즉각 해결하도록 해야 함
 - 노인 및 장애인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거용도와 복지가 혼합된 일체형 주거복지동 신축을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함. 현 세화종합사회복지관 부지와 서측의 유희부지에 입지하는 것이 적합함

것으로 판단되며 신축되는 시설에는 저층에는 복지시설, 고층에는 주거시설이 들어가며 지하 주차장을 계획함

○ 공통사항

- 현 운영주체인 인천도시개발공사, LH 공사(주택관리공단)와 연수구청 및 동사무소, 지역의 사회복지관, 경찰, 병원, 의회, 거주민 등 관련 주체들이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협력해야 함
- 임대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자체적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임. 국·시·구비,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의 재정적, 인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현실적으로 재정 확충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관련 주체들의 연합체를 통해 사람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 재원이 마련되면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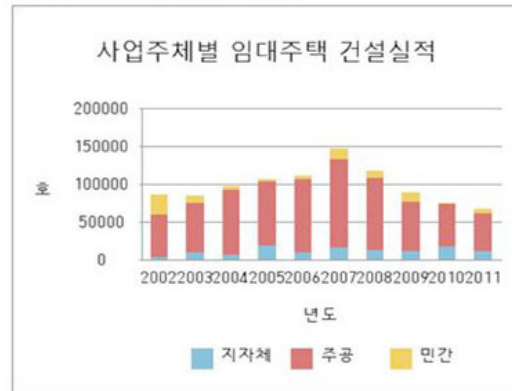
바람직함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선학시영, 연수시영단지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연수주공1차단지 세 단지이다. 세 단지 모두 1992~1993년에 준공되어 약 20년이 경과된 노후 단지로 주거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illegible]

합계	86,586	84,768	97,226	105,787	111,536	146,565	116,908	89,603	75,658	66,796
지자체	4,033	10,106	6,150	18,533	9,461	15,769	12,802	10,501	18,049	11,159
주공	55,403	64,686	86,845	84,476	96,991	117,351	94,788	66,527	55,675	50,097
민간	27,150	9,976	4,231	2,778	5,084	13,445	9,318	12,575	1,934	5,540

*출처:국토해양부(시도별자료)
건설실적 : 사업계획승인 기준(단, 다가구-부도임대주택-미분양매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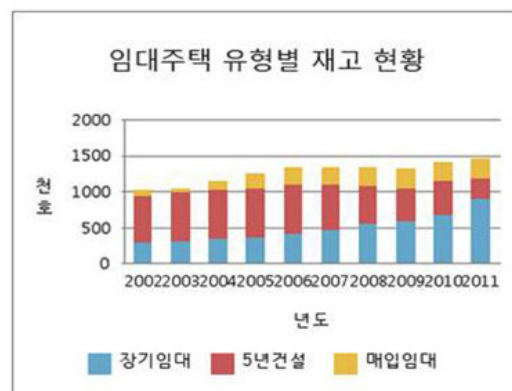
■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02~2011)

- 임대주택 재고는 2009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임
-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건설임대주택 비율은 감소함
- 이는 신규 건설 임대주택보다 기존 다가구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임대주택공급 방식을 전환했기 때문임

표 3. 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1,021	1,046	1,150	1,243	1,330	1,335	1,341	1,311	1,399	1,460
장기임대 (영구/50년/국민)	289	304	330	358	403	461	549	581	667	890
5년건설	644	682	695	675	691	627	523	456	472	295
매입임대	88	60	125	210	236	247	269	274	260	275

* 출처:국토해양부(시도별자료)
재고량 : 현재 임대주택 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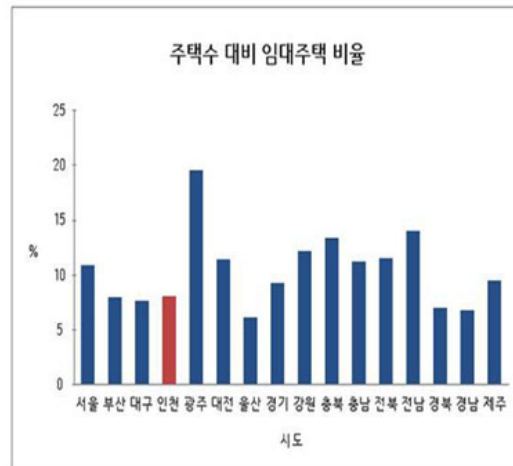


■ 인천의 임대주택 현황

- 전국의 전체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약 9.9%에 이룸. 영국 19.2%, 네덜란드 35%, 프랑스 17%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11년 기준 인천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약 65,811호이며 인천시 전체 주택의 약 8%를 차지함. 이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 19.5% 대비 50%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같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 10.9%, 경기 9.2%에 비해서도 낮은 편임.
-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이므로 공공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의 추가적 공급이 필요함

표 4. 전국 시도별 임대주택 재고 비율

	주택수(호)	임대 주택수(호)	비율(%)
전국	14,677,419	1,459,513	9.9
서울	2,525,210	275,181	10.9
부산	1,031,331	81,005	7.9
대구	691,702	52,564	7.6
인천	822,552	65,811	8.0
광주	443,925	86,450	19.5
대전	421,620	48,010	11.4
울산	310,952	19,011	6.1
경기	3,217,483	296,714	9.2
강원	536,485	65,197	12.2
충북	509,968	68,486	13.4
충남	716,159	80,249	11.2
전북	633,477	72,567	11.5
전남	690,508	96,913	14.0
경북	933,391	65,763	7.0
경남	1,033,580	70,643	6.8
제주	159,076	14,949	9.4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은 건설 주체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